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 특징 및 시사점

2025. 6



한국은행 충북본부

- 차례 -

<요 약>

I. 검토배경	1
II. 충북지역 노년층의 경제 상황	3
III.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의 특징	5
1. 노년층 일자리의 전반적 특징	5
2. 노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특징	8
IV. 시사점	13

<참고문헌>

<요 약>

1.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북은 2024년 고령인구 비율이 21.9%에 달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전국(20.0%)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 취업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 청년 고용 악화, 기업 부담 증가 등 사회적 갈등 확대 우려에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본고에서는 충북지역 노년층의 경제 상황과 재취업 일자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고령층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88.5만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 소득(167.9만원)의 1/2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나쁜 것으로 판단

생애 주된 일자리는 일생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로 노년에도 청장년 시기의 일자리를 이어가는 경우이며, 재취업 일자리는 현재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지칭

충북지역 노년층의 경제 상황

4. 충북지역 노년층은 근로소득이 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활비, 의료비 등 개인지출의 본인(또는 배우자) 부담 비중이 각각 90.6%, 84.5%로 매우 높아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연간 평균 근로소득은 전국(504만원)보다 낮은 359만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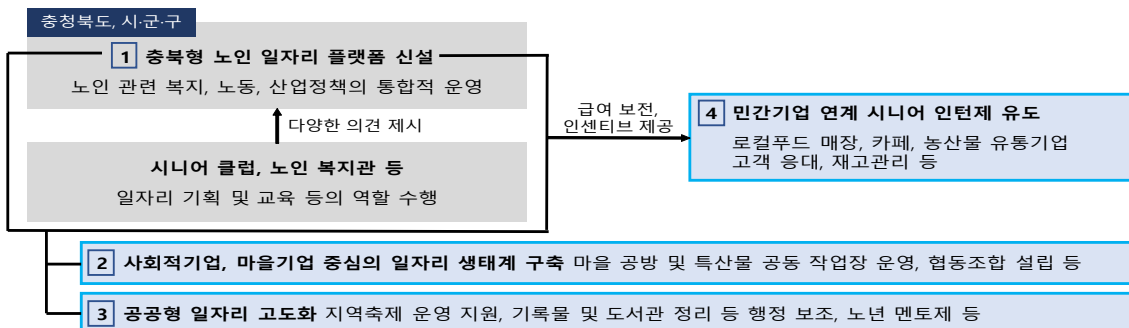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의 특징

5. 충북지역 노년층은 농업(65~69세 44.0% → 70대 53.6% → 80세 이상 58.7%, 2024년 연령대 내 비중), 사회복지 서비스업(11.4% → 23.2% → 32.7%) 등의 분야에서 임시·일용직(65~69세 16.2% → 70~74세 36.0% → 75~79세 56.3% → 80세 이상 75.5%)이나 고용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41.2% → 25.1% → 37.3% → 11.7%), 무급가족 종사자(17.9% → 28.3% → 6.5% → 11.0%)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 재취업 일자리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직 일자리 비중(65~69세 41.6% → 70~74세 50.9% → 75~79세 67.1% → 80세 이상 84.8%, 2023년 연령대 내 비중)이 크며, 재취업 사유는 생계비 마련이 54.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 일자리에 대한 재취업 비중이 49.7%로 전국(41.1%)을 상회하였다.

시사점

7.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충북형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 플랫폼을 신설하고 고령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운영 시 시니어 클럽, 노인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기획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 7.1. 또한 플랫폼 내 노인 역량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노년층의 경력, 전공, 기술, 관심사 등을 DB화하고, 이들의 역량이 생산적으로 발휘되게 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노인 참여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지역 폐교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방 및 특산물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농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을 노년층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형 일자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축제 운영 지원과 문화재 주변 관리·해설, 지자체 기록물 및 도서관 정리 등 행정 보조 등을 위한 1년 단위 채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의 다양한 삶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노년 멘토제’ 등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0. **민간기업과 연계한 ‘시니어 인턴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 노년층을 인턴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하거나 제도 도입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 매장, 카페, 농산물 유통기업 등에서 고객 응대,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추후 제도의 실용성을 감안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년층 친화 일자리 공급 확대 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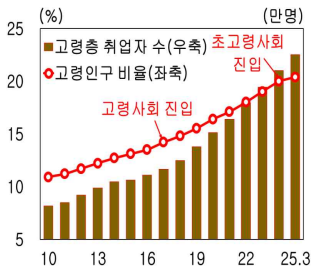


I. 검토배경

1.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노년층¹⁾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2024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 진입 이후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 기간 중 65세 이상 취업자 수(17년 216.6만명 → 24년 380.6만명)는 75.7% 증가하였다.
 - 1.1. 충북은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노년층 취업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충북은 2023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8%)로 진입하였고 2024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1.9%로 상승하였다. 노년층 취업자 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5년 3월 현재 17.3만명까지 늘어났다²⁾.
2.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빈곤율은 매우 높다. 2022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3년 고령층의 30.3%가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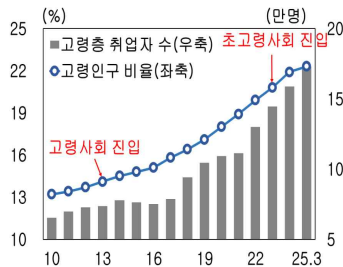
노년층 취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 경신을 지속

고령인구 비율¹⁾ 및 고령층 취업자 수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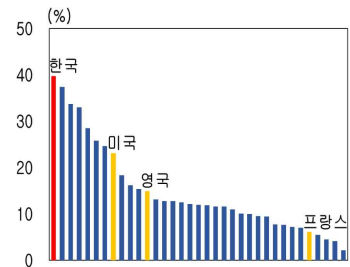
주: 1)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충북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OECD 국가의 노인 빈곤¹⁾율
(2022년)



주: 1) 가처분소득 50% 이하
자료: OECD

3. 청년 고용 악화, 기업 부담 증가 등 사회적 갈등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³⁾, 노인 빈곤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본고에서는 충북지역 노년층의 경제 상황과 재취업 일자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본고의 노년층(고령층) 또는 노인은 65세 이상을 지칭한다(「노인복지법」, OECD 통계).

2) 충북지역 전체 취업자 수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8%에서 2013년 9.4%(고령사회 진입 시기), 2023년 15.4%(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25.3월 17.8%로 꾸준히 높아졌다.

3)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참조하길 바란다.

현재 162만명*인 충북 인구는 2034년에 정점(164만명)에 이른 후 2052년 154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령층 인구는 현재 31만명에서 2052년 67만명까지 빠르게 늘어나며 노인인구 비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8%에서 43.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5,167만명)의 3.1%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11번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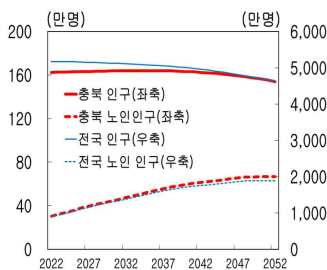
충북의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형(중간 연령층 多)에서 2052년 역삼각형(고령층 多, 유년층 少)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는 낮은 출산율,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충북의 중위연령은 현재 46.2세에서 2052년 60.5세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진다. 충북지역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113만명에서 2052년 76만명으로 줄어들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69.7%에서 49.4%로 20.3%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전국 71.1% → 51.4%, -19.7%p).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1/4분기 중 37.9%에서 2025년 1/4분기 중 46.7%로 8.8%p나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64.2% → 67.0%, +2.8%p)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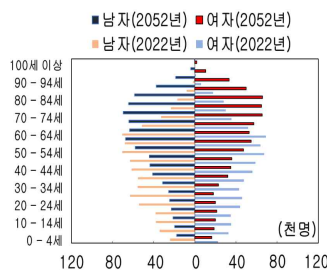
한편 인구구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2025년 3월)에 따르면 충북 내 청주시 흥덕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13.8%로 비교적 낮았으나, 괴산군은 42.2%로 매우 높았다.

인구 변화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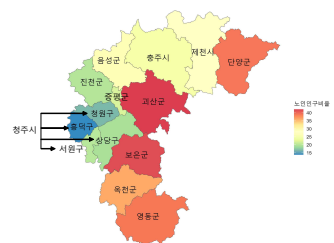
주 : 1) 중위추계 기준
자료 : 통계청

충북 인구 피라미드 (2022년, 2052년)



자료 : 통계청

충북지역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3월 기준)

Ⅱ. 충북지역 노년층의 경제 상황

충북지역 노년층은 **근로소득이 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활비 등 개인지출의 본인 부담 비중이 높아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소득 여건이 전국보다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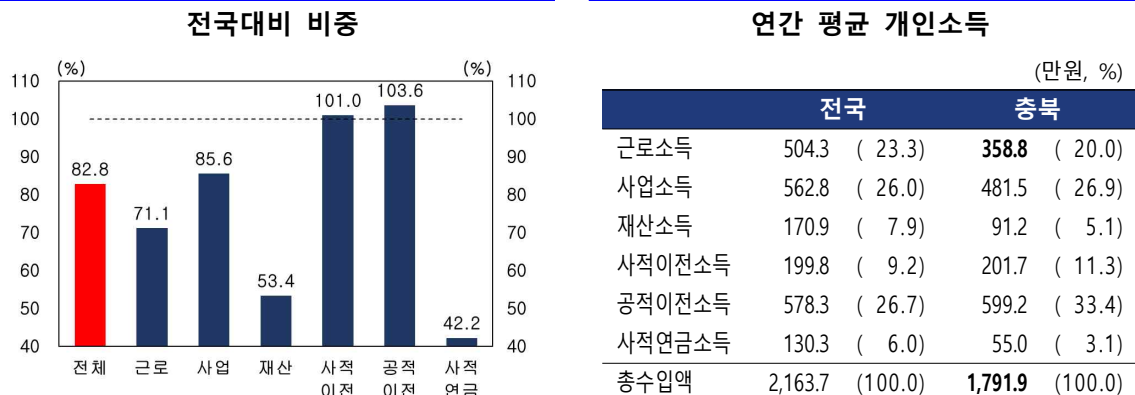
5. **충북은 노년층의 소득 여건이 전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연간 평균 개인소득은 1,792만원으로 전국(2,164만원)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특히 재산소득과 사적연금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각각 전국의 53.4%, 42.2% 수준에 불과하였다.

5.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국보다 적었다.** 충북지역 노년층의 연간 평균 근로소득은 359만원으로 전국(504만원)의 71.1% 수준에 그쳤다. 자영업 등을 영위하는 노년층이 취득하는 사업소득(482만원)도 전국(563만원)의 85.6% 수준이었다.

6. **충북지역 노년층은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충북지역 노년층의 총수입 중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비중이 33.4%로 가장 컸으며, 이는 전국의 공적이전소득 비중(26.7%)을 상회한다.

충북지역 노년층의 소득 여건이 전국에 비해 취약한 편

충북지역 노년층의 연간 평균 개인소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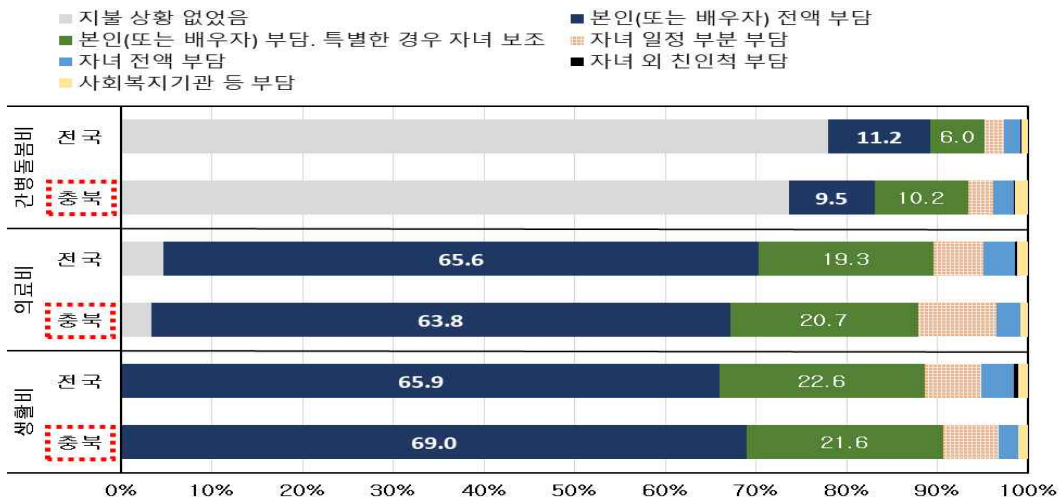
주: 1) ()내는 총수입액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개인지출에 대한 본인 부담 비중이 큼

7. 노년층은 생활비, 의료비 등 개인지출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노년층은 개인지출 부담 주체가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가 생활비는 90.6%, 의료비는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간병돌봄비도 지불 상황이 있는(지불 상황이 없었던 경우가 73.6%임) 경우 주된 부담 주체는 본인 및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개인지출의 대부분을 본인(또는 배우자)이 직접 부담

충북지역 노년층의 개인지출 부담 주체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음

8. 충북지역 노년층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중이 전국보다 작았다.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충북지역 노년층의 만족(‘매우 만족’, ‘만족’) 비중은 28.0%로 전국(31.1%)보다 낮았다. 특히 ‘매우 만족’ 비중은 0.4%에 불과하였다(전국 3.2%).

충북 노년층은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28.0%)가 전국(31.1%)보다 낮음

충북지역 노년층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만족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충북	0.4	27.6	56.1	13.1	0.4
전국	3.2	27.8	48.2	17.7	1.8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Ⅲ.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의 특징

1. 노년층 일자리의 전반적 특징

충북지역 노년층은 **농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임시·일용직**이나 **단독(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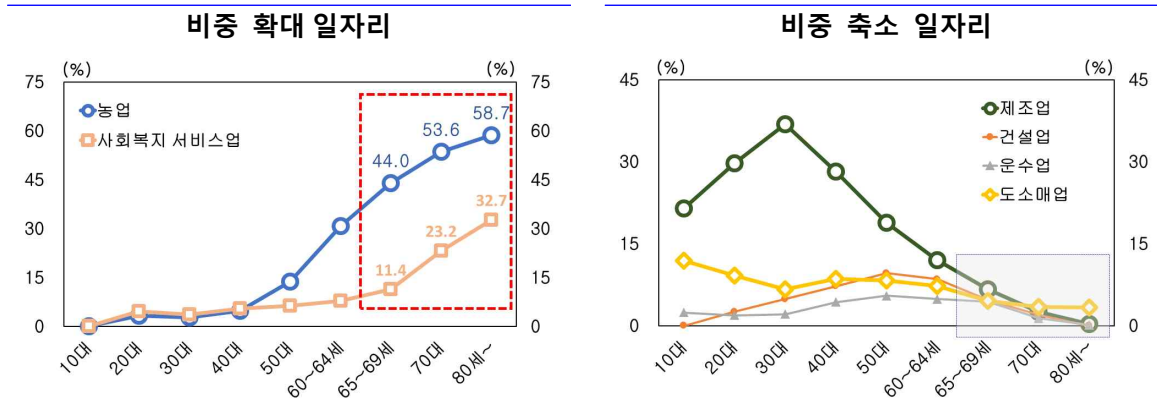
농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다수

9. **농업, 사회복지 서비스업⁵⁾ 일자리 비중이 크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충북지역 업종별 일자리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는 농업 비중이 연령대 내 44.0%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업(11.4%) 순이었다. 더욱이 동 업종 비중(농업: 70대 53.6% → 80세 이상 58.7%, 사회복지 서비스업: 23.2% → 32.7%)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확대되었다.

9.1. 반면 제조업(65~69세 6.7% → 70대 2.5% → 80세 이상 0.3%), 건설업(4.7% → 2.0% → 0.0%), 도소매업(4.5% → 3.4% → 3.3%), 운수업(4.4% → 1.4% → 0.1%) 등의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축소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

충북지역 업종별 일자리 비중¹⁾



주: 1) 연령대 내 업종별 취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2024년 상반기))

4) 이는 전국도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충북은 무급가족 종사자(18.8%)의 비중이 매우 크다(전국 8.3%).
 5) 노인 및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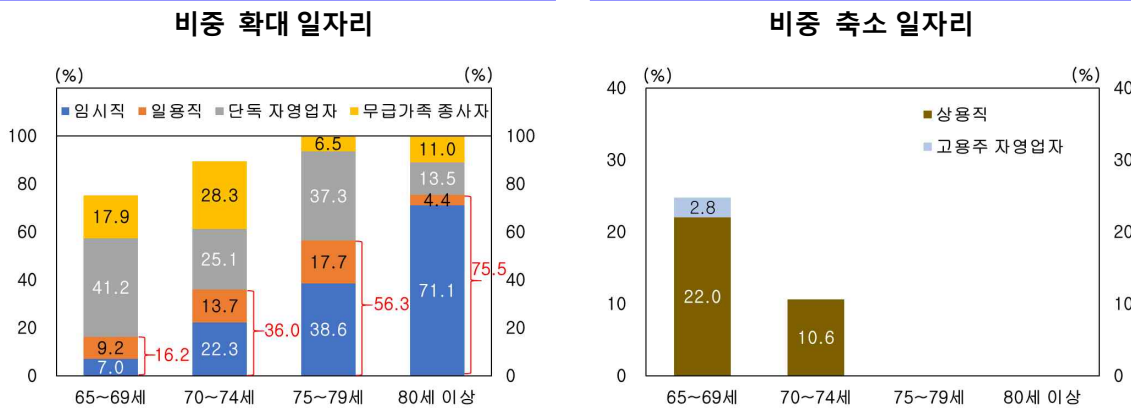
임시·일용직, 단독(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가 다수

10.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일용직, 단독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비중이 크다. 2023년 기준 충북지역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는 단독 자영업자 비중이 연령대 내 41.2%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은 상용직 22.0%, 무급가족 종사자⁶⁾ 17.9%, 임시·일용직 16.2%,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8% 순이었다. 특히 임시·일용직 비중은 70~74세 36.0%, 75~79세 56.3%, 80세 이상 75.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확대되었다. 단독 자영업자(70~74세 25.1% → 75~79세 37.3% → 80세 이상 11.7%), 무급가족 종사자(28.3% → 6.5% → 11.0%)는 연령대가 높아져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 반면 상용직은 70~74세(10.6%)까지 비교적 큰 비중을 유지⁷⁾하다 75세부터, 고용주 자영업자는 70세부터 연령대 내 일자리 비중이 0%로 축소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시·일용직 등의 비중이 확대되며,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수준을 유지

충북지역 노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비중¹⁾



주 : 1) 연령대 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6)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계청의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7)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32.9%),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20.9%),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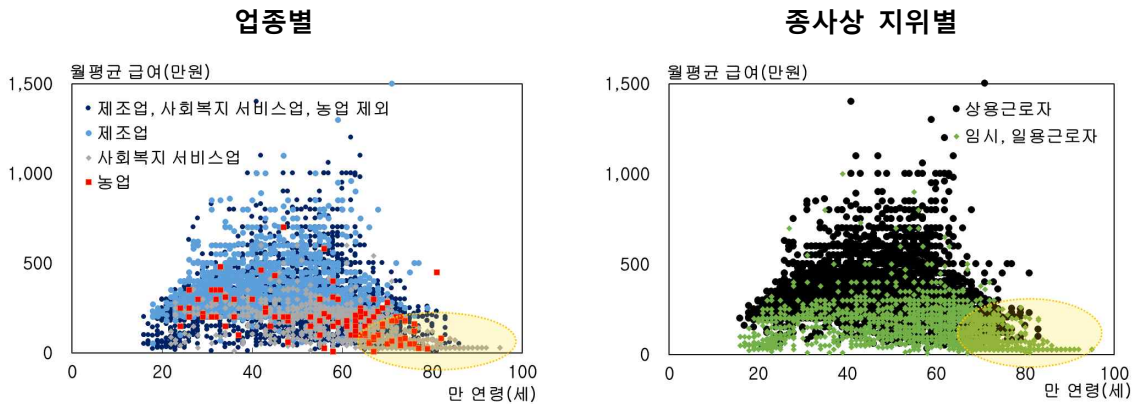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

12. 노년층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낮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충북지역 연령별 급여 분포를 업종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확대되지만 동 일자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1. 임시직, 일용직도 마찬가지이다. 고령층에서 상용직보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 분포가 확대되지만 월평균 급여 수준은 낮아진다.

노년층 일자리(농업, 사회복지 서비스)는 임금수준이 낮음

연령별 급여¹⁾ 분포



주 : 1)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2024년 상반기))

2. 노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특징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관련 일자리 비중이 크며, 가장 큰 재취업 사유는 생계비 마련이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 등으로 공공 일자리에 대한 재취업 비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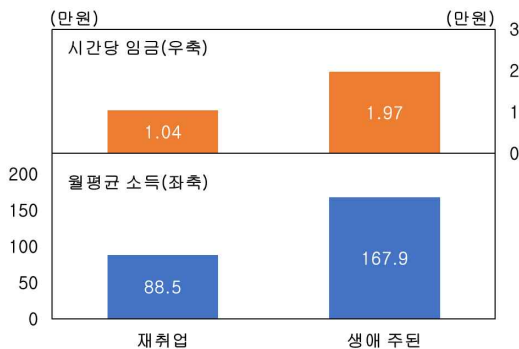
13. 노년층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⁸⁾와 재취업 일자리⁹⁾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재취업을 중심으로 노년층 일자리의 특징을 살펴본다¹⁰⁾.

13.1.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 불안정성이 높다. 2023년 기준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88.5만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 소득(167.9만원)의 1/2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¹¹⁾해도 재취업 일자리의 평균 시급(1.04만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1.97만원)를 크게 하회한다.

13.2. 더욱이 충북은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비중은 42.4%로 17개 시·도 중 강원(57.4%), 제주(44.8%)에 이어 3번째로 크다¹²⁾.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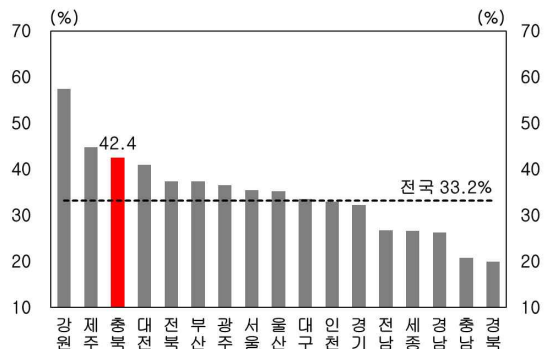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의 급여 수준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비중은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음

시·도별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비중¹⁾



주 : 1) 노년층 일자리를 '생애 주된'과 '재취업' 일자리로 구분할 때 재취업 일자리 비중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8) 일생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로, 노년에도 청·장년 시기의 일자리를 이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9) 현재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10)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징은 <참고 2>를 참조하길 바란다.

11) 「(월평균 소득) / (평균 주당 근무시간×4.5주)」로 계산하였다.

12)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57.6%로 17개 시·도 중 15번째에 불과하다.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관련 일자리가 다수

14.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관련 직업 비중이 크다.** 2023년 충북지역 재취업 노년층의 단순 노무 관련 종사자 비중은 56.3%에 달한다(전국 61.0%). 특히 단순 노무 종사자의 79.0%가 청소 및 경비 관련직¹³⁾에 해당한다(전국 79.7%). 한편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령대 내 단순 노무직 비중(65~69세 41.6% → 70~74세 50.9% → 75~79세 67.1% → 80세 이상 84.8%)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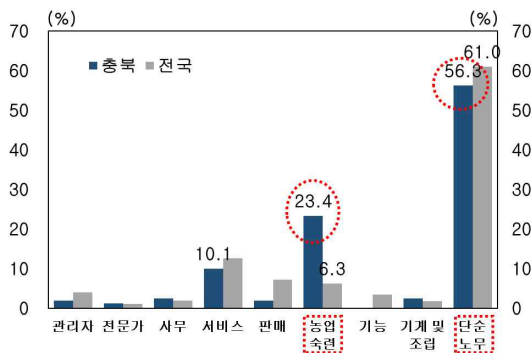
14.1. **단순 노무직의 재취업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 고용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충북지역 노년층 단순 노무 관련 재취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67.6만원(시급 1.03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수준¹⁴⁾에 불과하다.

15. **단순 노무직 다음으로는 농업 숙련(23.4%), 서비스(10.1%) 일자리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은 전국(6.3%)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컸다¹⁵⁾.

단순 노무 관련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 농업 일자리 비중은 17개 시·도 중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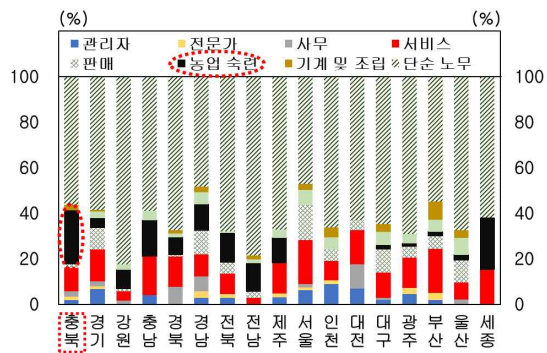
직업(대분류)별 노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비중

충북지역 직업별 비교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직업별 17개 시·도 비교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13) 다음으로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8.5%),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7.0%) 등의 순이며, 동 일자리 비중은 전국(각각 5.6%, 3.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 2023년 우리나라 생계급여는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이다(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이다.

15) 충북은 지역내 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충북 2.4%, 전국 1.4%)과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32.6%, 20.3%)이 전국보다 큰 편이다.

생계 유지형 일자리가 다수

16. **생계비 마련을 위해 재취업하는 노년층이 많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사유를 보면 생계비 마련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돈 마련(17.5%), 건강 유지(16.4%) 등의 순이었다.

생계 유지형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

충북지역 노년층의 재취업 사유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여유시간 활용	능력(경력) 발휘	인간관계 유지	사회적 기여
54.1	17.5	16.4	7.2	2.5	1.7	0.6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정부 지원 일자리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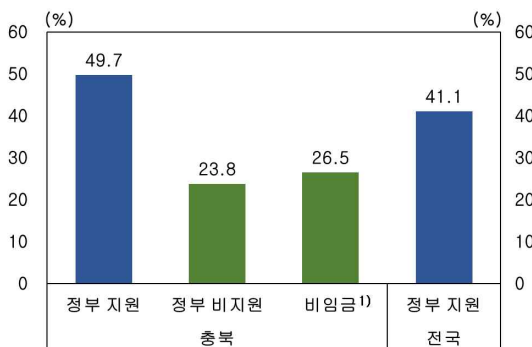
17.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일자리¹⁶⁾에 재취업하는 노년층이 많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정부지원 재취업 일자리 비중은 49.7%로 전국(41.1%)을 상회하였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12.3%), 농업 숙련(3.3%)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일자리가 절반을 차지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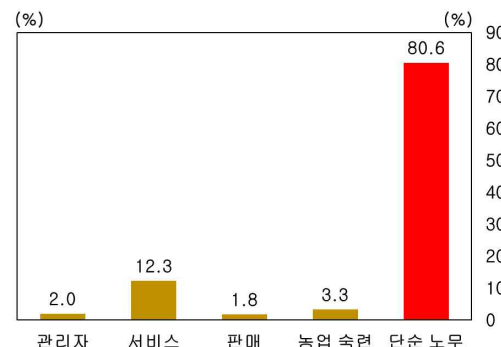
노년층의 정부 지원 여부에 따른 재취업 일자리

충북지역 정부 지원 재취업 일자리 비중



주 : 1)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정부 지원 재취업 일자리 내 직업별 비중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2023))

16)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는 임금(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일자리 여부를 편제한 다. 따라서 동 통계의 정부 지원 일자리에는 비임금(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근로자가 제외된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6.5%이다.

18. 충청북도는 공익활동 사업 등 기본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 이외에도 도시농부, 일하는 밥퍼 등의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은 충북지역 고령층 고용에 약 10%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¹⁷⁾된다.

충청북도의 노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 고용에 약 10% 기여

충청북도의 노년층 일자리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실적 ¹⁾
노인 일자리 운영 (중앙)	[노인공익활동] 老老케어 등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33.1천명
	[노인역량활용] 경력을 활용하여 아동돌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5.4천명
	[공동체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	1.8천명
	[취업지원] 해당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	0.4천명
충북형 도시농부	노인, 은퇴자, 주부 등 도시지역 유희인력을 영농 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희인력 공급 방안 마련	95.2천명
충북형 도시근로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부, 은퇴자 등 유희인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하여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252.2천명
일하는 밥퍼	2024.10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고령의 취약계층 복지 모델로 농산물 전처리, 공산품 단순가공 등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104.7천명

주: 1) 2025.1~5월 중
자료: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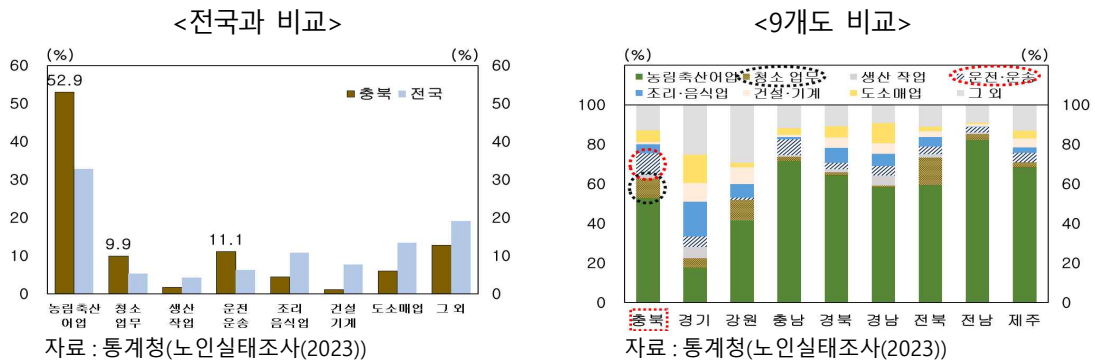
17) 해당 사업의 월별 노년층 참가자 수 추정치를 노년층 취업자 수 평균(2025.1~5월)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참고 2 충북지역 노년층의 생애 주된 일자리 특징

충북지역 노년층의 생애 주된 일자리를 업종별로 보면 농업 비중이 가장 크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농림축산어업 일자리 비중은 52.9% 달한다(농업 종사자의 평균 근무 기간*: 34년). 다음으로는 운전·운송(11.1%), 청소업무(9.9%) 등의 순이며, 상위 3개 일자리 비중 모두 전국(각각 32.8%, 6.3%, 5.3%)보다 높았다. 특히 **운전·운송, 청소업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운전·운송 비중은 9개도 중 가장 컸으며, 청소업무 비중은 전북(13.9%), 강원(10.2%)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24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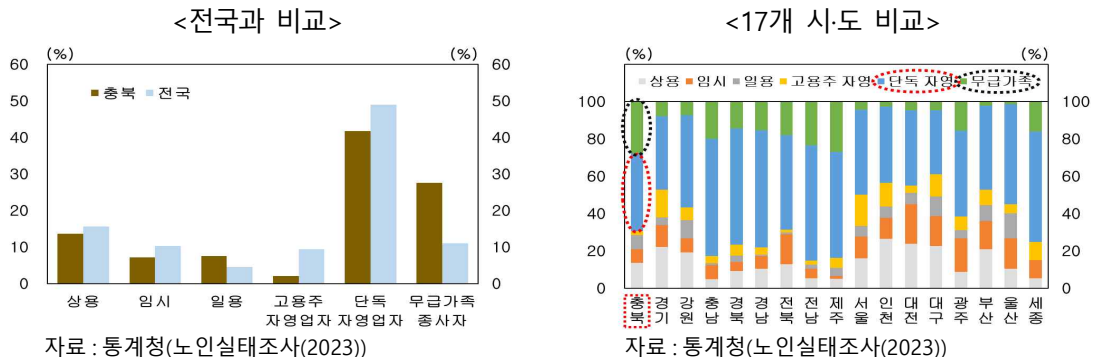
업종별 생애 주된 노년층 일자리 비중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단독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크다.** 2023년 충북지역 노년층의 고용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비중은 41.7%이다(평균 근로 기간 : 32년). 이 중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은 70.6%에 이른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자영업자의 비중은 매우 작다.** 고용주 자영업자의 비중은 17개 시·도 중 전북(1.5%) 다음으로 낮은 2.1%에 불과하다. **단독 자영업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는 무급가족 종사자이다.** 충북의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27.6%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크며, 이들의 대부분(94.2%)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상용과 임시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은 각각 9.9년, 3.9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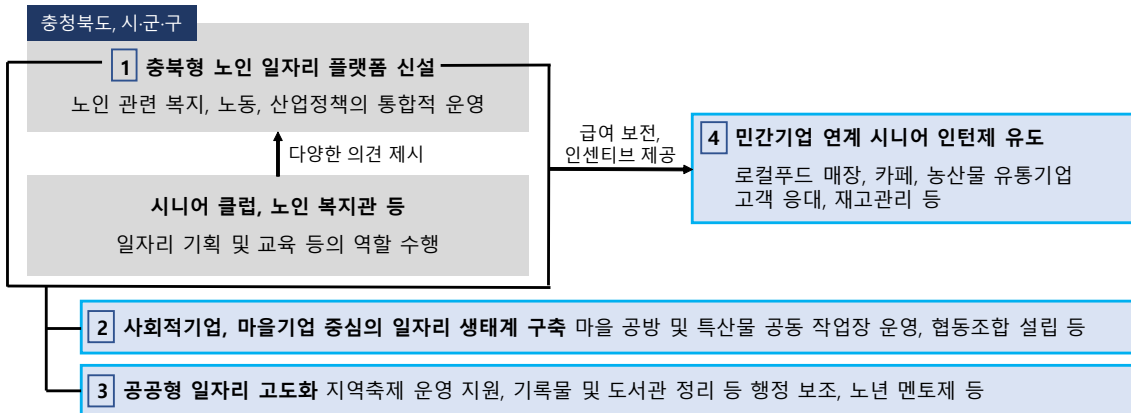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생애 주된 노년층 일자리 비중



IV. 시사점

19. 고령화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년층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도 임시·일용직, 단독(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 일자리는 생계형 비중이 컸으며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관련 일자리가 많았다.
20. 따라서 노동공급 부족, 노인빈곤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년층 친화 일자리¹⁸⁾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①충북형 노인 일자리 플랫폼 신설, ②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 ③공공형 일자리 고도화, ④민간기업 연계 시니어 인턴제 유도 등의 다양한 정책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층 친화 일자리 공급 확대 방안(안)



① 충북형 노인 일자리 전담 플랫폼 신설

21.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충북형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 플랫폼을 신설하고 고령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운영 시 시니어 클럽, 노인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기획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18) 노년층 다수가 취업한 일자리 중에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고용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박진(2016)).

21.1. 또한 플랫폼 내 노인 역량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노년층의 경력, 전공, 기술, 관심사 등을 DB화하고, 이들의 역량이 생산적으로 발휘되게 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

22. 노인 참여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지역 폐교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방 및 특산물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농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을 노년층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공공형 일자리 고도화

23.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형 일자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축제 운영 지원과 문화재 주변 관리·해설, 지자체 기록물 및 도서관 정리 등 행정 보조 등을 위한 1년 단위 채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의 다양한 삶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노년 멘토제' 등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민간기업 연계 시니어 인턴제 유도

24. 민간기업과 연계한 '시니어 인턴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 노년층을 인턴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하거나 제도 도입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¹⁹⁾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 매장, 카페, 농산물 유통기업 등에서 고객 응대,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추후 제도의 실용성을 감안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4.1. 또한 동 제도를 청년 창업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세대 융합형 일자리 모델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9) 민간부문의 시니어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연령군과 비교 시 고령층 근로자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박진, 2016) 생산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고용주가 고령층 근로자를 고용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가원 외(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영철·김서호(2021), “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산업진흥연구.

박진(2016), “고령층 근로자 친화 일자리의 산업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오삼일·채민석·한진수·장수정·김대일(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이경희·이지은·신선옥·정현상·권익성(2024),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12호.

보건복지부(2024),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5),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1분기 14개 신규 선정”, 보도자료(2025.4.30.).

충청북도(2022), “충청북도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2023~2026)”.

충청북도(2025),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4),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